



### 오륙도 칼럼

신인섭

윤진석 시계작가의 어머니

## 발달장애 아들을 '시계 그림 작가' 로 키우기까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드라마 속 우영우가 가장 애착하는 존재가 고래였다면, 올해 24살 된 우리 아들 윤진석 작가에겐 시계가 있다. 돌이켜 보면 아들이 '시계 작가'가 되기까지 24년의 시간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과정을 겪었다.

5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서 엄마인 나는 한동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우울함에 잠 못 이룬 적이 많았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과는 '다름'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아들을 위해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다

언어치료를 시작으로 심리, 놀이, 감각, 인지치료와 예체능 등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이 되면서 시조창, 사물놀이에 이어 배드민턴에도 관심을 보여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특히 10년 넘게 꾸준히 배운 사물놀이는 발달장애인풍물패 '골령쇠'에서 상쇠(꽝과리를 치며 농악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를 하며 각종 장애인

국악대회에서 상을 타왔다.

그런데 미술은 아들의 재능 가운데 가장 늦게 알아차린 분야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석이는 18개월 무렵부터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던 것 같다. 또래 아이들보다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었던 아들은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계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시작되었다. 모든 감정을 '시계'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기쁨 때도 시계를 가리키며 웃으며 춤치고, 화나고 슬플 때도 '시계'라며 소리 질렀다. 연필을 쥐기 시작한 5살 무렵 스케치 북에 도형(○△□)을 작게 오려 자기만의 상징처럼 시계에 직접 붙이는 행동을 반복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시계 형태가 그려졌고 종이 앞면에는 시계의 앞면을, 종이 뒷면 똑같은 위치에서 시계 뒷면을 그려서 관찰 장소와 시간까지 적어 넣었다. 남구보건소, 대연3동주민센터, 뮤에어, 남부산농협... 자신이 다녀간 곳에서 본 시계를 수백 수천장씩 그렸고, 친구나 친척집에 가면 몰래 시계를 분해해 고장을 내놓기 일쑤였다. 시계 앞에서 서성거리는 통에 도둑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다. 그때는 끝없이 시계를 그려대는 아들을 보며 '언제까지 시계 그림을 그리

까?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는 아들이 왜 그렇게 시계에 집착하는지 당치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환경과 장소, 사람들과의 눈맞춤과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낯선 장소에 가면 비슷한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벽시계를 보며 안정과 평화를 찾았던 것이다. 시계를 통해 그 공간을 기억하고 그때 만났던 사람과 상황, 감정 등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계야말로 더없는 친구였다.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4년 전 자폐인사랑협회부산지부 회원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예비작가 4명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뜻은 모으기 쉬웠다. 그러던 차에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로 잘 알려진 한젤마 아티스트를 운명처럼 만났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발굴, 조명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첫 만남에서 그녀에게 시계 그림 대신 진석이가 그린 나무와 꽃 그림을 보여줬다. 그때 만해도 나는

시계는 단지 낙서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진석이가 진짜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 아닌 것을 알기라도 하듯 "진석이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있어 하는 다른 그림은 없나요?"라고 물어왔고 그제서야 나는 쭈뼛하며 시계 그림을 꺼내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바로 이거예요"라며 탄성을 질렀다. "종이 뒷면에 시계 뒷모습을 그릴 생각을 우리는 왜 못했을까"라며 감탄했고, 진석이에게 꾸준히 시계 그림을 그릴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시작된 시계 그림은 종이에서 캔버스로 옮겨졌고 아들만의 화려한 색으로 입혀지면서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활동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3년간 초대 개인전 6회, 국내외 그룹전 40여회를 비롯해 각종 장애인미술대회에서 크고 작은 상을 휩쓸었다. 발달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과 MBC 라디오 발달장애인식 개선 공익광고, 세계자폐인의날 '올해의 자폐인상'을 받기도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시계그림 작가로서의 인터뷰 문의가 들어왔고 작년 6월에는 tvN드라마 '마안'에서 시계작품을 그리는 진석이의 작가 스토리가 극중 에 소개되기도 했다. 비록 드라마 속 허구이



시계그림 작가로 활동하는 윤진석씨.

지만 진석이 시계작품이 12억원에 팔려 드라마 밖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느린 아이' '말을 잘 못하는 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늘 자존감이 떨어진 채 지나야 했던 아들은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뭉툭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가득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고산을 오르는 등반가를 옆에서 묵묵히 돕는 셀퍼처럼, 엄마인 나는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는 우리 아들을 끝까지 응원하리라.

### 애견훈련소, 주인 함께 가야 효과

우리집 개가 달라졌어요



많은 견주들이 훈련소에 개를 보내지만 훈련소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 분명 훈련소에서는 알아와 앞드려, 기다려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 하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영악하게도 개는 사람을 구별한다. 제대로 된 훈련소에서 배운 강아지라면 훈련사의 지도하에 명령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훈련사가 아닌 항상 이따해 주는 주인이 아주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명령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잘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 명령어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훈련소에 보내지 않고 유튜브 영상으로 집에서 교육을 시키려는 견주들도 있다. 애견훈련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5분 만에 배우는 알아'라는 제목은 너무나 유혹적이다. 견주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유발시킨다. 현실을 이야기 하자면 영상길이가 5분일뿐이다. 섬세한 내용은 빠져있다. 영상을 시청한 견주들은 개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작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주입식 위주이며 교수위주의 수업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통 3일, 길면 1주일을 어설프게 시도하고 답답함에 야단과 호통을 치다가 포기한다.

견주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직접 가서 배우는 것이다. 훈련

사들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주인은 훈련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자신의 개에게 전달하는 중간체계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첫 번째로 주인과 훈련사는 서로 피드백하며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것은 개의 상태를 항상 협의하면서 교육하는 장을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도하는 사람은 결국 견주이기 때문에 개의 적극성을 더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개를 훈련소에 맡기면 1주일 정도 적응기간을 강아지에게 준다. 큰 훈련을 하지 않으며, 개가 훈련소라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게 된다. 견주와 함께 방문하고 함께 수업을 들으며 함께 집으로 귀가한다면 적응기간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지도하는 사람도 익숙하며, 집으로 귀가하고 수행 할 수 있는 속제도 생기기 때문에 효율성은 많이 늘어난다. 세 번째로 '두번째 엄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훈련사에게 훈련방법의 기초내용만 숙지하고 몸이 익힌다면, 지금의 반려견이 죽고 난뒤 다른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예전보다 더 지혜롭게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견주가 되고 싶다면 훈련소에 반려견을 맡기지 말고, 견주가 직접 가서 배우는 것이 최선이다.

김윤수  
세연고 반려동물과 교사

###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 부산남구문화원 10~12월(제56기) 문화강좌

- 접수기간 : 9월 26일(월)부터 선착순마감, 방문접수 • 운영기간 : 10월 4일(화)~12월 23일(금) 12주
- 수 강 료 : △회원 40,000원(가곡반, 합창단 제외) △비회원 60,000원 △합창단 90,000원
- 접수장소 : 부산남구문화원 3층 사무국(☎624-1333)  
남구 신선로 566-2 3층(LJ메트로시티 본표우체국 옆 현장민원실 3층)
- 홈페이지 : http://bsnamgucc.or.kr/

강좌명	강의 시간	정원	준비사항
사진교실	금 10:00~11:50	15명	카메라 개인 지참
가곡반	금 15:30~16:20	30명	교재(개인구입)
가야금	수 10:00~10:50	15명	악기 개인 지참(가야금대여:30,000원)
태극권	화, 목 10:00~10:50	20명	실내화 개인 지참
한국무용	초급 월, 수 13:30~14:20	20명	바선, 연습복 개인 지참
	중급 월, 수 14:30~15:20	20명	
댄스스포츠	고급 월, 금 10:00~10:50	24명	신발(댄스화) 개인 지참
	중급 월, 금 10:50~11:40	24명	
수채화	A반 목 10:00~11:50	15명	4절 스케치북, 지우개, 4B·2B 톱보우연필, 수채화 물감, 붓
	B반 금 10:00~11:50	15명	
연필소묘	A반 목 13:00~14:50	15명	4절 스케치북, 지우개, 4B·2B 톱보우연필
	B반 목 15:00~16:50	15명	
아크릴화	A반 화 10:00~11:50	15명	4절 스케치북, 지우개, 4B 톱보우연필, 커터칼
	B반 화 13:00~14:50		
기초한문서예	금 13:00~14:50	15명	재료비 별도
사군자(문인화)	금 15:00~16:50	15명	재료비 별도
우크렐레	초급 월 09:30~11:10	15명	악기 개인 지참
	고급 월 11:20~13:00	15명	
	중급 월 13:10~14:50	15명	
통기타	초급 목 13:30~15:20	20명	악기, 보면대, 발받침대 개인 지참
	중급 화 13:30~15:20	20명	
	고급 목 15:30~17:20	20명	
남구문화원 합창단	공인반 화 15:30~17:20	20명	교재(개인구입)
	목 11:00~12:30	30명	
	생활회화 화, 목 13:00~13:50	15명	
영 어	여행회화 화, 목 14:00~14:50	15명	교재(개인구입)
	기초회화 화, 목 15:00~15:50	15명	
	초중급 화 13:00~14:50	15명	
일본어	초중급 화 13:00~14:50	15명	교재(개인구입)
	중고급 화 09:40~11:30	15명	

### 대동골문화센터 10~12월(제24기) 문화강좌

- 접수기간 : 9월 27일(화)부터 선착순마감, 방문접수 • 운영기간 : 10월 4일(화)~12월 23일(금)
- 접수장소 : 대동골문화센터 3층 사무실(☎607-3381~2)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147
- 수 강 료 : ▷수채화, 연필소묘 : 90,000원 ▷노래교실 : 30,000원  
▷파워에어로빅 : 135,000원 ▷그 외 강좌 : 60,000원

강좌명	강의 시간	정원	강사명	준비사항
사군자(문인화)	화 10:30~12:30	20명	서금숙	붓(2호), 붓받, 문진, 먹
연필소묘	화 13:00~15:00	15명	성현선	4절 스케치북, 지우개, 연필(4B, 2B)
자연치유요가	화, 목 09:30~10:20	20명	홍승화	운동복
미디어아트	화, 목 11:30~12:20	20명	최영애	운동복
라인댄스	오전 수, 금 09:30~10:20	20명	성애정	실내운동화, 운동복
	오후 화, 목 14:30~15:20	20명		
생활요가	수, 금 11:30~12:20	20명	박정자	실내운동화, 운동복
파워에어로빅	화, 수, 금 10:30~11:20	20명	박미경	실내운동화, 운동복
통기타(초중급)	화 10:30~12:30	18명	정현식	통기타(구입시 강사님께 문의)
서예 (한글, 한자)	A 목 10:30~12:30	20명	박태경	붓(20mm), 붓받, 문진, 먹, 종이
	B 목 13:00~15:00	20명		
수채화	금 13:00~15:00	15명	최상철	5절 스케치북, 연필(2B, 4B) 지우개, 칼, 수채화물감, 파렛트, 붓(8, 12, 18호)
즐거움합송교실	화 14:30~16:30	20명	김남주	-
노래교실	수 10:00~12:00	80명	김옥준	교재비 : 5,000원 CD(희망자만) : 5,000원

### '어린이책의 도시' 부산을 꿈꾸며



박미라의 동화 이야기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 부산록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부산불꽃축제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가족 나들이를 부른다. 코로나시국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기에 기대가 더 크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느라 책이 안 팔려서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것이라 음악, 영화, 미술 축제는 다 있는데, 왜 책 축제는 없는가? 기초자치단체나 도서관에서 하는 작은 규모의 축제는 있지만, 부산 대표 국제 책 축제가 없는 건 무척 아쉽다.

이탈리아에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다. 생면 파스타와 탄산수 품은 레드 와인 대표적 맛의 도시이자, 시민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 '회랑(回廊)'의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볼로냐 대학 건물을 둘러보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관광 포인트다. 볼로냐 대학은 1158년 문을 연, 세상에 가장 오래된 종합대학이다.

볼로냐에서는 매년 봄, 세계 최대의 어린이책 축제가 열린다. 1964년 4월 4일, 팔라조 레 엔조 궁전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스 구석구석을 돌아보려면 꼬박 하루를 투자해도 부족하다. 역사와 규모, 그 속에 녹여낸 세심함까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게 없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참여하는 건, 대다수 아동문학가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일 것이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는 그야말로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다. 팝, 드라마, 영화, 웹툰에 이어 아동문학에도 흔쾌히 'K'를 붙여줄 만하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은 물론 상하이, 뉴욕, 모스크바의 어린이 책 축제에서도 한국작가들의 인기는 최고다. 최근에는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가 안테르센상이라는 영광을 날리기도 했다.

주목 받는 K-아동문학이 부산에서 '국제 아동도서전'으로 꽃피우면 어떨까? 자연경관과 문화적 자원이 바탕이 된 도시 부산 기초자치단체나 도서관에서 하는 작은 규모의 축제는 있지만, 부산 대표 국제 책 축제가 없는 건 무척 아쉽다.

이탈리아에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다. 생면 파스타와 탄산수 품은 레드 와인 대표적 맛의 도시이자, 시민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 '회랑(回廊)'의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볼로냐 대학 건물을 둘러보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관광 포인트다. 볼로냐 대학은 1158년 문을 연, 세상에 가장 오래된 종합대학이다.

볼로냐에서는 매년 봄, 세계 최대의 어린이책 축제가 열린다. 1964년 4월 4일, 팔라조 레 엔조 궁전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스 구석구석을 돌아보려면 꼬박 하루를 투자해도 부족하다. 역사와 규모, 그 속에 녹여낸 세심함까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게 없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참여하는 건, 대다수 아동문학가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일 것이다.

산나라 물마나 10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	산행장소	연락처
용호산악회	10월23일(일)	거창 우두산	010-9497-4575
21c산악회	10월9일(일)	거창 현성산	010-7563-1943
산이좋아산악회	10월23일(일)	창녕 관룡산	010-9329-3560
원뿌리산악회	10월16일(일)	창녕 관룡산	010-4564-7769
우암산악회	10월23일(일)	지리산 뱀사골	010-6578-0488
백호산악회	10월8일(토)	거창 출렁다리	010-5621-4007

※ 산악회 회원이 아니라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스토리텔링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